

“촛불에서 햇불로”... ‘오월광주’ 대통령 퇴진 총궐기

14일 ‘탄핵안 재표결’ 1만명 운집 금남로 가두행진... 전남도민 참여 80년 5월 ‘민주화 시위’ 재현 관심 ‘대통령 직무정지 시민이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인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만여명 규모의 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가두행진도 예정되면서 2024년에 1980년 오월광주의 열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13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금남로4가부터 전일빌딩245 일대에서 ‘금남로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2·3 계엄사태 다음날인 4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던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13일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궐기대회부터 3차 궐기대회가 진행됐던 4일부터 6일까지는 1000명 안팎의 시민과 관계자가 집회에 참가해 비교적 참여인파가 적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이탈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된 7일에는 참여인원이 4000여명으로 크게 늘었고, 다음날인 8일에도 3000여명이 운집했다.

특히 7일은 광주비상행동 관계자 800



지난 4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86개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가 주관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대행진’ 참여를 위해 상경했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로 광장이 가득 메워졌다.

이처럼 갈수록 탄핵정국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비상행동은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14일 1만여명 규모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많은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5·18민주광장 대신 금남로에서 6차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또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꾸준히 협의를 이어오며 이날 전남도민도 함께 참여하는 광주전남시도민 공동집회를 추진 중이다.

6차 총궐기대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 노점상상인연합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등 500여명이 가두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수창초등학교에서부터 총궐기대회가 진행되는 금남로 4가까지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

을 촉구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졌던 가두행진이 재현되는 것이다.

44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는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득 찼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금남로 일대에서 햇불을 들고 평화행진을 펼치면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광주비상행동에는 “가두행진에 참여하고 싶다”는 단체와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차 총궐기대

회에 전시민적 동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우식광주비상행동대변인(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충구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전쟁을 조장해 계엄을 완성하려 했던 위험한 시도들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이러한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 모든 광주시민은 14일 금남로로 집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중·고교 학생들도 “대통령 퇴진” 촉구

오늘 학생 7018명 모여 시국선언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도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다. 광주시 고등학생의회는 1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에는 11일 오후 현재 광주지역 중·고교생 7018명이 서명했다.

광주시 고등학생의회는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SNS를 통해 ‘교과서를 부정하지 않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고등학생의회는 “헌법적 질서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을 일컫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 시도, 사변도, 국가비상사태

도 아니었던 그날 밤, 국가의 안보를 해하려는 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해 겨는 계엄의 총구는 이 나라의 모든 시민에게 전쟁과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군부독재의 상징과도 같던 계엄령은 44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투쟁과 더불어 아직도 아물지 않는 아픔에 대해 배우며 자란 우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비극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교과서에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국가 운영의 모범이 돼야 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도, 절차도 없는 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민주 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근거한 기관인 국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등 국격은 급격히 추락했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대외 신용도 하락은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에게도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국가 정치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결이 부결도 아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무산이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여야나 좌우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무의미한 정쟁이 아닌 구국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